

# 전기로만 67km 주행... 벤츠 'GLE 400 e 4매틱 쿠페' 상륙

4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 적용 모델 국내 공식 출시  
새로운 전기 모터·개선된 '하이브리드 주행 프로그램' 탑재



메르세데스-벤츠의 럭셔리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더 뉴 GLE 400 e 4매틱 쿠페'가 국내에 상륙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럭셔리 풀사이즈(full-size)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LE 쿠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E 400 e 4매틱 쿠페'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모델 출시로 더 뉴 GLE의 SUV, SUV 쿠페, 고성능 모델, 플러그인하이브리드까지 총 6종의 모델 라인업을 갖추게 되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우선 더 뉴 GLE 400 e 4매틱 쿠페는 벤츠의 4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주행효율성과 성능을 갖췄다.

구동 시스템은 최대 출력 252마력(ps), 40.8kg·m을 발휘하는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M254)과 최고 출력 100kW, 최대 토크 440Nm (44.9kg·m)의 새로운 전기 모터가 결합됐다. 새로운 전기 모터는 차량이 출발 시 더욱 민첩하고 역동적으로 움직

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은 9G-TRONIC 자동변속기와 조합해 고밀도의 출력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이전 모델 대비 출력이 41마력(ps) 높아졌다. 또 31.2kWh의 배터리 용량으로 1회 충전 시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국내 기준 최대 67km에 달한다.

여기에 개선된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프로그램으로 주행 경로에 적합한 전기 주행 모드도 제안한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면 '전기(ELECTRIC)' 모드가 기본으로 설정,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만으로 주행하게 되며 최고 시속 14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전기 모터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이 요구될 때는 가솔린 엔진을 사용한다. '배터리 홀드(BATTERY HOLD)' 모드는 전기 모드의 사용을 제한하고 가솔린 엔진만으로 주행해 배터리 충전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킨다.

'하이브리드(HYBRID)' 모드에서는 주행 경로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E 400 e 4매틱 쿠페' 외관 및 인테리어(왼쪽).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에 따라 전기 모터 및 가솔린 엔진의 상호 작용을 지능적으로 조절한다. 최신 버전의 오프로드 주행 모드도 전기 주행 모드에서 경험할 수 있다.

SUV로서의 역동성과 쿠페 감성을 동시에 갖춘 디자인으로, 실내의 모두 AMG 라인이 기본으로 적용돼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도 더했다.

먼저 외관에는 벤츠 패전의 다이아몬드 그릴, 크롬 트림으로 깔끔하게 마감된 AMG 프론트 에이프런, 블랙 인서트가 장착된 디퓨저 모양의 AMG 리어 에이프런 등의 AMG 라인 디자인 요소가 적용됐다.

실내에는 이번 더 뉴 GLE 전 라인업에 적용된 최신형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 탑재로 보다 섬

세하고 편리한 차량 조작 기능성과 함께 스포티한 시각적 효과까지 살렸다. 중앙 및 측면 송풍구 또한 이전 모델의 검은색 테두리 형태에서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의 인테리어의 요소를 계승한 크롬 형식으로 새롭게 마감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다른 더 뉴 GLE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최신 안전 및 주행 보조시스템과 실내 편의사양도 탑재됐다.

먼저 앞좌와의 간격 유지 및 자동 속도 조절, 제동 및 출발, 차선 감지, 최대 100km/h의 속도 범위에서 정지 차량 감지 등을 지원하는 최신 버전의 주행 보조시스템인 드라이브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됐다. 이와 함께 투명 보닛 및 360도 카메라를 포함하는 주차패키지와 노면 상

황, 차량 속도 및 하중에 따라 서스펜션을 지능적으로 조절해주는 에어매트 패키지가 지원된다.

실내에는 쾌적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는 에너지이징 패키지 및 에어 밸런스 패키지 등이 제공되며, 2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13개의 스피커와 590W 출력, 부메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등도 지원된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차량을 운용할 수 있도록 더 뉴 GLE 400 e 4매틱 쿠페에 탑재된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최대 8년/16만km(선도래 기준) 무상 보증을 지원한다. 가격은 1억320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탈탄소화에 탈디젤차...올해 등록비중 첫 10% 아래로

10월까지 9.2%...전기차 주춤에 하이브리드 강세 이어져

올해 국내 디젤(경유) 승용차 등록 비중이 처음으로 10%로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디젤 승용차는 한때 가솔린차를 누르고 50%에 육박하는 등록 비중을 자랑했지만, 탈탄소 흐름에 따른 친환경차 인기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6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시장에서 디젤 승용차는 총 11만5350대가 등록돼 지난해 같은 기간(15만1307대) 대비 23.8% 감소했다. 전체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에 불과했다.

연간 기준 올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승용차 구매자 10명 중 1명도 디젤차를 사지 않는다는 뜻으로, 디젤 승용차는 지난해 등록 비중이 12.6%로 떨어지며 하이브리드차(14.6%)에도 밀린 바 있다.

전통적으로 디젤 엔진이 강세를 보였던 수입 승용차 시장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입 디젤 승용차 등록 대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9.5% 감소한 1만9333대로, 수입 전기차(2만780대)보다도 밀리며 연료별 등록 대수에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전기에 이어 4위로 떨어졌다.

판매 비중도 8.8%로 한 자릿수여서 올 한해 10% 아래로 떨어질 것이 유력하다. 지난해 수입 디젤 승용차 등록 비중은 11.7%였다.

뛰어난 연비와 높은 토크로 2010년대 큰 인기를 끌던 디젤 승용차는 탈탄소화에 따른 배출 규제 강화와 친환경차 인기에 해가 갈수록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경기침체 여파로 경유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디젤 승용차 수요를 끌어 내리고 있다.

2016년 64만대에 달했던 디젤 승용차 등록 대수는 2017년 57만1000대, 2018년 55만7000대, 2019년 43만1000대, 2020년 39만8000대, 2021년 25만8000대, 2022년 18만2000대로 매년 줄고

있다.

전체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45.9%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16년 40.9%, 2017년 36.7%, 2018년 35.6%, 2019년 28.0%, 2020년 24.0%, 2021년 17.3%, 2022년 12.6%로 떨어졌다.

자동차 업계는 디젤차의 자리를 친환경차가 대신 하면서 당분간은 하이브리드차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2.5%에 불과했던 하이브리드 승용차 등록 비중은 2021년 12.4%로 처음으로 10%대를 넘더니 올해 1~10월까지 19.9%까지 뛰어오른 상태다.

최근 충전 인프라 등의 문제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어 전기 승용차가 디젤차를 따라잡기까지는 예상보다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같은 기간 전기 승용차 등록 비중은 7.2%로, 디젤차에 2.0%포인트 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동화 전환에 맞춰 디젤 승용차가 사라지고 있다"며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에 대신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도요타 '5세대 프리우스' 내달 국내 출시

2.0L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종

도요타코리아는 도요타의 '5세대 프리우스'를 다음 달 13일 국내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5세대 프리우스는 2.0L 하이브리드(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도요타코리아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사전 계약이 가능하다.

세계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 모델인 프리우스는 2009년 3세대 모델이 한국에 처음 소개됐다. 5세대 프리우스는 두 모델 모두 2.0L 자연 흡기 가솔린 엔진이 적용돼 기존 1.8ℓ 엔진 대비 동력능력이 개선됐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전 세대 대비 에너지 용량이 1.5배 늘어난 13.6kWh(킬로와트시)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돼 1회 충

전 시 복합기준 64km의 주행거리를 달성했다.

5세대 프리우스는 "감성을 자극하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라는 주제 아래 도요타의 2세대 TNGA 플랫폼이 장착됐다. 그 결과 차체는 더 낮고 넓어졌고, 차체 경량화와 고강성화로 주행 안정성과 핸들링은 향상됐다.

아울러 도요타의 예방 안전 시스템인 '도요타 세이프티 센스'와 '사라지대 감지 모니터' 등이 전 트림에 탑재됐다.

강대한 토요타코리아 상무는 "5세대 프리우스는 지난 2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크라운, 하이랜더, 알파드에 이어 올해 국내 출시하는 다섯번째 전동화 모델"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현대차, 울산에 전기차 공장 짓는다...2025년 완공

연간 20만대 양산 규모

현대차가 전동화 시대를 맞아 울산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현대차는 13일 울산공장 내 전기차(EV) 신공장 부지에서 울산 EV 전용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 EV 전용공장은 54만 8000㎡(약 16.6만 평) 부지에 연간 20만 대의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약 2조원이 투자돼,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하며 2025년 완공, 2026년 1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울산 EV 전용공장은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에 들어서는 현대차의 국내 신공장이다.

정의선 회장은 기공식에서 "울산 EV 전용공장은 앞으로 50년, 전동화 시대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라며 "이 자리에서 100년 기업에 대한 꿈을 나누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울산 EV 전용공장에서는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의 초대형 SUV 전기차 모델이 처음 생산될 예



울산 EV 전용공장 기공식 세리머니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정이다.

현대차는 울산 EV 전용공장에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 실증 개발한 제조 혁신 플랫폼을 적용해 근로자 안전과 편의, 효율적인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미래형 공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울산 EV 전용공장을 통해 미래 자동차 생산의 패러다임을 리딩하고, 제품의 품질, 공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람들에게 더 나은 모빌리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현대차, 상용차 부품할인 프로모션

18~ 50%...내달 8일까지 전국 99개 중대형 상용 블루핸즈

현대차는 13일 현대모비스와 중대형 상용 블루핸즈와 함께 '상용차 부품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8일까지 4주 동안 전국 99개 중대형 상용 블루핸즈에서 주요 소모성·기능성 부품들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소모성 부품인 연료필터, 요소수필터, 에어컨필터, 에어컨필터 ▲기능성 부품인 EGR플러, EGR밸브, 히터어셈블리, 히터코어 등 총 8종의 부품에 대해 18%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제공한다.

이번 '상용차 부품할인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공식 홈페이지(www.hyundai.com) ▲현대 SHOP(shop.hyundai.com) 및 ▲마이현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동절기 안전운행을 위해 주기적 점검이 필요한 주요 부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이 현대 상용차 고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판촉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